일 주 문

연무사 수계법회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은 10월 2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1500명에게 수계했다. 수계법회에는 동학사 학인과 어머니불교회가 동참했다.

불교문화 유적답사 실시
광주불교교육원장 영조 스님은 11월 4일 '충주지역 고구려 불교유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제73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했다.

순직 경찰관 추모위령재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성인 스님(대덕사 주지)은 11월 16일 부천시암연합회 스님 및 부천남부경찰서 곽훈 서장, 유가족과 함께 순직 경찰관 제17회 추모위령천도재를 봉행한다.

수국사의 사원배치 주제 세미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문명대 소장은 11월 10일 오후 1시50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수국사의 사원 배치와 불교미술의 재조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산창립 25주년 기념법회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11월 10일 오후 4시 30분 동산불교대학 2층 교육관에서 동산창립 제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이전 불교전문 출판편집기획사 중도기획(대표 신원식)은 서울 중구 필동 3가에서 서울 종로구 청진동 18번지 삼영빌딩 702호로 이전했다.(02)2278-2240

미타종 8대 총무원장 회암 스님 취임식

(재)대한불교미타종은 10월 17일 총본산 봉암사에서 제8대 총무원장 회암 종사 취임식과 창종조 월공당 벽암 대종사 93회 탄신일을 기념해 국제 보살계를 봉행했다. 종단 임원진을 비롯하여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취임식, 보살계 수계법회, 합동영가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국제 마정수기 보살계 법회는 네팔 텐진 린포체 스님이 진행하였으며, 권성우 이사장의 종단 발전에 공헌한 종도들의 표창장 수여도 진행됐다. 제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회암 스님은 "64년간 불교전통을 계승해 온 한국불교 중추종단 미타종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종단 화합을 위한 종도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종단 발전 사업들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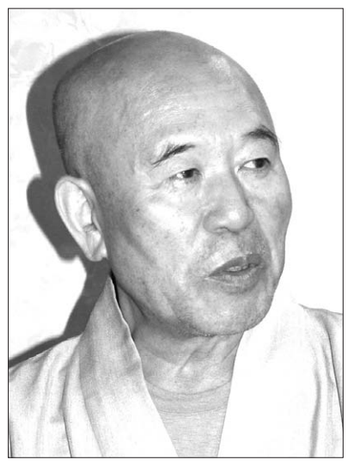
'함께하는 세상' 만들 것

'금강경 사경 국토순례단' 이끄는 지성 스님

"국토사랑의 국토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국토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힘을 내는 호국불교사상이 우리나라 불교에는 강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불국토를 순례하면서 국민정신을 규합하는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사경을 선택했습니다. 개인 수행 공덕도 되고 국민사상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체역할을 할 사경순례단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사상, 공동체 사상을 통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모토로 발족한 '함께하는세상'의 이사장 지성 스님(국토사랑 <금강경> 사경순례단 인솔법주 · 사진)이 전국의 사찰 33곳을 찾아가는 '국토사랑 <금강경> 사경 순례'를 시작했다. 10월 7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국토사랑 <금강경> 사경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지는 11월 7일 조계사이다.

1000일 기도와 함께 하는 '<금강경> 사경 순례 법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송광사 백양사 등 총 33개 사찰을 순례하며 <금강경>을 사경하게 된다. 1000일 동안 매일 <금강경>을 한 번 읽고 발원문을 낭독하는 수행생활을 해야 하는 사경순례단은 현재 90여명의 동참자가 있다.



"<금강경> 한문본을 사경할 예정인 사경순례단은 순례에 동참하는 날뿐 아니라 한 달 동안 집에서 매일 수행과 함께 <금강경> 31분을 사경하고, 사찰 순례에 가는 날 현지에서 32분 '응화비진분'을 사경해 한 권의 사경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성 스님은 사경순례법회의 시스템을 설명한다. 이렇게 33곳의 사찰을 다니며 만들어진 33권의 <금강경> 사경본은 회향법회 후 대구 극락사에 건립되는 사경탑에 모두 봉안할 예정이다.

지성 스님은 "직장인을 위한 주말 순례단을 꾸려 내년 3월경에는 2차 사경순례단이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차 4차 꾸준히 순례단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우리나라 불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자들과 함께 그들의 서투른 한국생활과 언어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 공유하고자 '함께하는 세상'을 발족했다"며 "불교자비 사상을 기반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많이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053)657-0408 강지연 기자

"국민들에 부처님 가르침이 친숙하게 할 것"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이기흥 회장

"불자체육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더 좋은 경기를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이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포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자 체육인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가 10월 29일 창립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는 체육인불자연합회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체육인불자회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체육인불자연합회 총재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기흥 회장(카누연맹회장 · 사진)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 불자체육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연합회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의 귀감이 되겠다"며 "선수들은 안정된 마음으로 더 좋은 경기를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친숙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 회장은 "체계적인 불자체육인 양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겠다는 종단의 뜻과 불자선수들의 염원으로 불자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며 "불자체육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격려하며 사회의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불자 체육인의 발굴 · 육성 · 지원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들을 위한 법회 개최 △회원간 단합과 화합 도모 △각국 불자선수들과의 유대 및 연대활동 등의 주요 사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의 지원으로 발족이 추진됐으며, 지난 10월 19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직구성을 시작했다.

현재 이연택 대한체육회명예회장이 명예회장을, 박종길 사격연맹부회장, 방대두 상무 레슬링감독, 이희경 前볼링대표감독이 부회장을 맡는 등 국내 스포츠 각 분야 200여 명의 지도자 및 선수들이 회원으로 등록한 상태다. 여수령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활기차고 재미있는 신도회 되도록 노력할 터"

동화사 4대 신도회장 김석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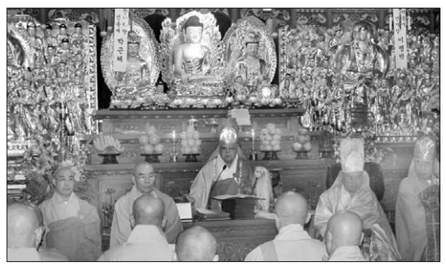
"앞으로의 인생 모든 것을 부처님과 함께 하고 불심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위상을 되찾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불교지도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11월 1일 대구 동화사 제4대 신도회장이 된 김석순 신임 신도회장(킴스치과 원장 · 사진)은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

김석순 회장은 "신도회 단합과 자기희생 봉사를 몸소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부하며 용맹정진해서 이번 집행부는 정말 수행정진하는 불교를 사랑하는 신도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주지 허운 스님 덕분에 신도회 집행부가 젊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김석순 회장은 "보다 젊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신도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불퇴전의 심신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지혜와 용기로 수행정진하는 신도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원융종 단일계단 수계법회 봉행



한국불교 원융종(총무원장 성관)은 10월 29~30일 원융종 총본산인 구로 원융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일공 종정예하를 비롯, 총무원장 성관 스님과 종단 임원진등 120여 종도가 참석했다. 일공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을 새기고 종단화합과 중생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70여명의 종도가 구족계와 사미계를 수지했다.(02)853-0431

한국불교 미륵종 캄보디아 성지순례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0월27일부터 31일까지 제6차 해외성지순례를 캄보디아에서 봉행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을 비롯한 사대부중 90여 명은 힌두교 초기유적지 롤로오스사원과 세계문화유산 앙코르 유적지를 답사했다. 또한 왓보사원(주지 테본나사)을 방문해 상호방문 등을 논의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제5회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체육대회

제5회 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 연합체육대회가 10월 28일 대전 공무원 연수원 잔디광장에서 백제불교회관 관장 장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참가한 대중들은 신행 단체와 불자 개개인이 서로 화합을 하여 내실 있는 지역 불교 전법도량으로 거듭나자"고 발원했다.

정수사 제1회 작은 산사음악회

예산 수덕사 대전포교당 정수사(주지 영보)가 10월 27일 제1회 작은 산사음악회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가수 범능 스님과 대전대 코스모스 동아리의 노래, 정수사 합창단의 음성공양, 플루트와 통기타 연주 등이 펼쳐졌다.

심혈관질환 10년후 암 제치고 한국인 사망1위!
www.chgg.co.kr

병원에서 안되는 심혈관질환을 약이나 수술없이

氣血순환법으로 뿌리채 뽑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허혈성심장질환, 부정맥, 심근경색,
만성두통, 손발저림, 수족냉증, 불면증, 생리통을 氣血순환법으로 시원하게 날린다.
목,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을 싹~ 없앤다.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 발 저림 3~5일 이면 OK!**

기혈순환법은
최상의 유산소운동으로써 몸 안에 최대한의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켜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강한 혈관 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숨이 차지않고 힘이들지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氣血순환법강좌 안내 -
5일 코스(12시간 완성)
● 오전반 : 10시 ~ 12시 30분(월~금)
● 오후반 : 14시 ~ 16시 30분(월~금)
본회와 지방지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1993년 창립
천일의학기공 본회 02)3436-3206~7

■ 지방지회
영등포지회 : 02)3662-9088
수 원 지 회 : 031)298-1777
서 산 지 회 : 041)667-5966
광 주 지 회 : 062)222-1477
제 주 지 회 : 064)742-6467
영 주 지 회 : 054)637-9810
부산진구지회 : 051)553-3113
부산연제구지회 : 051)758-8275

**천일의학기공을 만나는 날은
횡재하는 날입니다**

수련회원에 가입하시면
○정화기 무료 증정!

미국 FDA가 의료기로 승인한 반지나 팔찌 중 1개증정

북한에서는 이 반지를 빛삼(빛의 산삼)반지라고 부르며
사향보다도 더 효과가 탁월하다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과학영화를 통해 소개한 ○정화기

〈메스컴보도〉
MBC통일전망대, KBS일요스페셜, 연합뉴스, 문화일보,
조선닷컴, 동아닷컴, 내일신문, 한국경제신문 보도

반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도 손쉽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원으로
천일의학기공이 성장해왔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입니다.

*수련에 뜻은 있으나 시간이 없으신 분은 먼저 회원에 가입하시고 반지를 받아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 수련을 받으셔도 됩니다. (회원증 발급)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